



신안 임자도 300만 튜립 '활짝'

신안군 임자도 튜립공원에 활짝 핀 80여 품종 300만 송이의 형형색색 튜립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지난 19일 개막한 임자도 튜립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신안군 제공>

### 진도 에너지공원 문 열어

울돌목 해양에너지 공원 오늘 개장식

진도군에 친환경적이고 영구성의 신 재생에너지에 관한 자료를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에너지 공원(사진)이 문을 연다. 진도군은 21일 "오늘(22일) 오후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된 울돌목 해양에너지 공원의 개장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울돌목 해양에너지 공원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일원에 사업부지 6847㎡에 해양 에너지전시관, 야외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울돌목 해양에너지공원이 인근의 명량대첩 승전광장, 녹진관광지구, 진도대교, 울돌목 등과 연계한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진도 울돌목 해양에너지 공원이 학생들의 해양 에너지 체험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공사비 부풀린 무안 재해위험지구 사업

3차례 설계변경 등...82억 → 121억 늘어나

낙찰업체 공사포기 각서 등 선정과정 의혹

무안군이 최근 준공허가를 내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것은 물론 업체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들과 업체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무안을 교촌·성내지역에 3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침수위험지구 1등급으로 지정돼 2010년도 사업지구

블록으로 교체하면서 공사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계변경과 블록 교체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해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묵인했다는 지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낙찰받은 다른 지역업체가 무안 지역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공사포기각서를 무안군에 제출하는 등 공사업체 선정과정도 불투명했다. 지난 2010년 2월20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공사를 낙찰받은 A업체는 6일 뒤에 입찰에 참가했으나 탈락한 지역의 B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5일 뒤에 공사포기각서를 군에 제출한 것이다. 지역의 B업체는 A업체 보증회사로 공사보증을 썼으며, 무안군은 공사가 이미 막바지에 들어선 지난해 5월에서야 제재 처분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점

을 들어 A업체를 부정당업체로 행정처분에 나섰다. 공사 착수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사도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애초 배수로를 개설하려 했는데 주변에 주공아파트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불가피하게 암거형 PC박스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박스 위에 아스팔트 등 다른 공사가 늘어나 공사비용이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부정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재해위험지구사업 공사로 인해 열 도로가 가라앉고 급이 가는 등 파손됐으나 군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준공해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완도에 젊은이들 몰려온다

전북·해조류 고부가 산업 각광...귀향 러시

남도 주민 23% 20~30대, 어린이집 개원도

전북의 섬 완도에 젊은이들이 귀향하고 있다. 전북과 해조류 양식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2, 3세대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완도군 남도에 사는 9명의 미취학 어린이들이 문을 여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북과 돛, 다시마 등 해조류 산업이 활성화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젊

은층 귀향이 잇따르면서 어린이가 늘고 그에 따른 보육시설도 새롭게 늘어가고 있다. 특히 전북섬으로 널리 알려진 노화도 부속도서인 남도는 전체 인구 913명 가운데 65세 이하가 732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20~30대가 215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다른 농어촌지역 인구 연령분포도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군은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전북과 해조류 양식산업이

발전하고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각박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향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벌써 5명의 젊은이가 남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남도 내리마을 최일(52) 이장은 "몇년 전만 해도 고향으로의 귀향은 도시생활을 견디지 못한 도피처로 치부됐지만 도시 젊은이들이 어촌에 가입해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노화도를 비롯한 도서 남도에 젊은층이 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희망이 있는 섬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 전북

## 부안 농촌체험관광 날개 달았다

코레일 기차여행 상품 '레일그린'에 10개 농가 선정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인 '레일그린' 체험프로그램에 부안지역 10개 체험농가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안을 찾는 체험객은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체험농가들의 경우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등 체험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21일 "코레일 '레일그린' 체험프로그램 전국 공개 모집에 부안 10개 체험농가가 참여하는 '옛날 옛적 시골체험'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옛날 옛적 시골체험은 10개 체험농가가 계절별 체험내용, 체험비, 먹거리, 주변 관광지 등을 엮어 구성된 프

로그그램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레일그린 체험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코레일은 부안의 농촌체험관광을 전국 철도역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부안을 찾는 체험객에게는 철도운임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KTX 내에 부안군 농산물 판매코너를 마련해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우수한 부안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촌체험관광을 위해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해 레일그린사업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레일그린 체험프로그램은 조만간 코레일과 MOU(업무협약서)를 체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체험농가는 자립적 소규모 모객으로 체험객 유치 한계성에 부딪혀 왔으나 '레일그린'사업으로 전격적 대단위 모객이 가능하게 됐다"며 "레일그린과 함께하는 부안농촌체험관광이 관광수요 증가에 증대한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체험농가는 보안면 '변산재', '우리밀 농촌체험휴양마을', '맑은순속목방산농장', '유기농과수원체험', 하서면 '백련농장', '머쉬몰', 부안읍 '만석골농원', 변산면 '미다원', 계화면 '서해바다낚시체험', 위도면 '섬꽃향기' 등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jv0681@



## 순창에 독일식 맥주 생산공장 건립

인계농공단지서 기공식...연산 500만 L 규모

'슈퍼 프리미엄 맥주'를 표방하며 맥주시장 진출을 선언한 (주)장엔크래프트브루어리 순창공장이 19일 순창군 인계농공단지에서 동지를 틀었다. 이날 기공식(사진)에는 황숙주 군수, 장창훈 대표, 각급 기관장,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장은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인계농공단지 내 동지를 큰 (주)장엔크래프트브루어리는 50억원을 투자, 5091㎡ 부지에 2210㎡의 지상 2층 규모의 공장을 설립, 올 연말 첫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독일의 세계적인 맥주 설비업체 카스파 슐츠(Kaspar Schulz)사의 설비를 도입해 연간 약 500만L 의

맥주를 생산할 계획인 (주)장엔크래프트브루어리는 지난 2004년 오픈한 서울 강남역의 하우스맥주전문점인 '헤르젠(Herzen)'에서 출발한 맥주전문회사다. 군은 여러 가지 영양분과 효소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식품으로 '호르는 빵'이라 불리는 최고급 웰빙맥주인 크래프트(Craft) 맥주는 명품 맥주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창훈 대표는 "세계 최고의 맥주를 만들어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에서까지도 우리나라 맥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 청보리밭 축제

내달 12일까지 열려

봄철 단골 나들이행사로 자리매김한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20일 개막해 5월12일까지 열린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청보리밭축제는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를 주제로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대에 펼쳐진 100ha의 보리밭에서 열린다. 축제는 초록 보리밭을 거닐며 봄을

만끽하고, 토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보리밭 셋길 걷기, 승마체험, 마술쇼, 보리게떡 만들기, 보리파리 볼기, 시골길 자전거·꽃마차 타기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보리밭을 배경으로 주말에 문화행사, 구전 이야기 등을 엮은 인형극, 연극, 댄스공연, 현악 연주, 마술쇼가 열린다. 진영호 축제위원장은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봄과 보리밭의 상쾌함을 즐기며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김주열 열사 조형물 건립

일몰 맞아 세워진 조형물은 높이 1.5m, 폭 0.8m로 금지 동초교가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했다. /연남뉴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를 기리기 위한 조형물이 19일 김 열사의 모교인 남원시 금지 동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졌다. 김주열 열사 53주기 추모

### 단신

#### 군산시 '버스도착 정보 알리미' 서비스

군산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정류장 13개소에 LCD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 설치, 모두 25개소의 정류장에서 버스도착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스정보안내기(Bus Information Terminal)는 노선별 실시간 버스위

치정보와 정류장 도착시간, 정류장별 경유노선 등을 안내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시스템(BIS) 업그레이드 진행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서부취재본부장

#### 순창군, 벼 육묘용 상토 등 8개 사업 36억 지원

순창군이 풍년농사를 위한 기반사업에 지난해 25억원보다 11억원이 늘어난 36억원을 지원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벼 육묘용 상토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볍씨 발아기 등 8개 사업에 36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이 미 공급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군은 고령화되고 부녀화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부담을 덜고 영농편의

를 제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일반상토(황토) 4172t과 공장상토 12만2000포, 상토매트 12만2000매 등을 공급했다. 또 건전한 육묘 육성을 위한 볍씨 발아기와 육묘용 파종기, 소규모 육묘장 등 농업기계와 농업시설 지원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전주시 '풍남문 한미당 잔치' 개최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남문 한미당 잔치' 문화공연을 풍남문상인회와 함께 20일 오후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중 하나로 사단법인 아리랑문화예술원의

무용, 판소리, 각설이 타령 공연과 함께 초대 가수 공연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지난달 29일 처음 시작한 풍남문 한미당 잔치는 오는 10월까지 7차례 열린다. /전주=박금석기자 서부취재본부장

#### 광안루서 中 절강성 신혼부부 12쌍 전통혼례

오는 26일 사적 제303호인 남원 광안루원에서 중국 절강성 향주의 신혼부부 12쌍이 전통혼례식을 갖는다. 남원시는 21일 "우호결연 도시인 향주를 지난해 방문해 협의한 끝에 향주시가 식을 올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 처음으로 결혼한 부부, 한국 전통 혼례례를 하고 싶은

희망자들을 접수받아 1500만원을 들여 남원에서 혼례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 관광, 레저 등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수준의 향주시와 향후에도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교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